

노조할 권리 쟁취! 2017임단투 승리! 7.12 다시 한번 총파업!

7.5 지부 총파업 성공적으로 열려

7월 5일 지부 총파업이 많은 조합원들의 참가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7년 임단투 승리와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인 지부 조합원들은 보쉬 앞에 모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보쉬는 최근 지부 교섭에서 계속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기존 합의사항까지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지부는 보쉬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부 총파업을 보쉬 앞에서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악질사업장은 집중투쟁으로!

지부는 지부교섭 승리를 위해 보쉬를 집중투쟁 대상으로 결정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부교섭이 7월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본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악질 사업장에 대한 지부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부 집행위원과 보쉬지회 확대간부들이 천막농성을 사수하고 있고,

매일 대전권 지회 교섭위원들과 함께 출근투쟁도 벌이고 있다.

보쉬자본은 2012년 부강의 보쉬전장에서 노조파괴를 벌였고, 최근에는 대전의 한국로버트보쉬에서도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쉬자본이 더 이상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7.12 총파업은 대전노동청 앞에서!

최근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 감독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은 엄벌에 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던 사업장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심각하다. 지부는 대전노동청의 실질적인 감독과 조치를 촉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대전노동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쉬자본과의 투쟁,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동청 압박 투쟁 등 지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지난 5일 총파업 이상으로 더 강한 투쟁을 12일 노동청 앞에서 만들자.

7.5 지부총파업 성사! 보쉬 앞 천막농성 돌입!

